

지방금융, 주주환원 확대로 '밸류업' 가속화

3개 지주 주주환원율 3.3%p ↑
배당 확대·자사주 매입 강화 등
금융당국 '밸류업' 정책 발맞춰
올해 들어 주가 16% 이상 상승

지방금융지주가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밸류업(저평가된 기업 가치 제고)'에 속도를 낸다. 통상 지방금융이 4대 금융지주보다 주주환원에 소극적이란 평가에 기업 가치도 낮게 평가받았던 만큼 주주환원율을 빠르게 끌어 올려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5일 각 금융지주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의 평균 주주환원율은 33.4%(BNK 30%, DGB 37.7%, JB 32.4%)다. 이는 같은 기간 4대 금융지주 평균인 37.6%(KB 39.8%, 39.6%, 하나 37.8%, 우리 33.3%)보다 4.2%포인트(p) 낮다.

지방금융의 주주환원율이 4대금융보다 낮았지만, 격차는 전년보다 줄었

다. 지방금융의 평균 주주환원율은 전년 대비 3.3%p 상승(BNK +2%p, DGB +8.9%p, JB -1.1%p)했다. 같은 기간 4대 금융 주주환원율은 2.4%p(KB +1.8%p, 신한 +3.6%p 하나 +4.8%p, 우리 -0.5%p) 올랐다.

지방금융의 주주환원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은 각 지방금융지주가 정부의 '밸류업'에 발맞춰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중간 배당 도입 등 주주환원 정책의 도입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와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장려해 실제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게 형성된 국내 기업의 주가를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금융주가 대표적인 '저평가주(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게 형성된 주식)'로 꼽혔던 만큼, 각 금융지주는 주주환원 목표를 제시하며 밸류업에 동참했다. 특히 지방금융은 중간 배당 도입,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

극 확대했다.

전년 대비 실적 하락으로 주가가 소폭 역성장한 DGB금융을 제외하면 지방금융의 주가는 작년에 평균 47% 상승했다. 4대 금융 평균인 32.6%를 크게 웃돈다. BNK금융과 JB금융보다 주가 상승이 가팔랐던 곳은 KB금융(54.7%)이 유일하다.

각 지방금융이 올해도 밸류업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지방금융지주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16% 가량 상승했다.

BNK금융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도 주주환원율 상승이 다소 미진했던 만큼, 올 상반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나선다. 규모는 지난해 순이익의 5%에 해당하는 400억원 규모다.

권재중 BNK금융 부사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지난해 연간 규모인 330억원보다 늘릴 예정이며, 이후에도 안정적인 범위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최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DGB금융은 전년 대비 실적 반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목표치는 600억원 규모다. 지난해 실적 감소에도 배당 성향(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늘린 만큼, 배당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배당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천병규 DGB금융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는 "최근 실적 부진 및 배당금 감소에 대한 투자자의 실망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조기에 이행해 대외 신뢰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JB금융은 올해 주주환원율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JB금융이 제시한 목표치는 45%로, 미지급분 추가 배당,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환원율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JB금융그룹은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현대해상 차보상 AI음성안내 적용범위 전반 확대

현대해상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 AI음성안내 시스템' 적용 범위를 보상처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AI음성안내 시스템은 인공지능 'AI음성봇'으로 자동차사고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2023년 업계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데 이어 이번에는 성능 강화와 함께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AI음성봇으로 운전자와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과정 등을 안내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예상 보험금과 수리비, 사고 처리 결과까지 안내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만기갱신도 AI를 통해 안내한다.

롯데손해보험 영업 플랫폼 '윈더' 앤어워드 '위너' 수상

롯데손해보험은 영업 지원 플랫폼 '윈더' (wonder)가 지난 2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앤어워드' '디지털 광고& 캠페인' 부문 증권·보험·신용카드 분야에서 '위너' (Winner) 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앤어워드' (A.N.D Award)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산업 시상식으로 디지털 산업에 기여한 혁신적인 광고·콘텐츠를 선정해 시상한다. 윈더는 누구나 직접 쉽게 보험을 설계하고 소득을 벌 수 있는 서비스 가치를 통해 보험 권유와 중복 보장 등 기존의 보험에 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

교보생명 '사이 좁은' 웹드라마 앤어워드 '위너' 수상

교보생명은 웹 드라마 '사이 좁은 이웃'이 '2024 앤어워드(A.N.D Award)'에서 디지털 광고 및 캠페인 부문 대기업 분야에서 위너(Winner)를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디지털 광고 및 캠페인 부문 위너에 선정됐다. 사이 좁은 이웃은 상부상조 정신을 지금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배우 이주승, 김예원, 김규남, 모델 정혁 등이 같은 빌라에 사는 청년 1인 가구의 삶을 연기했다. 일상 속에 알게 모르게 녹아 있는 상부상조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첫 직선제 열기 후끈... 조합원 대기줄 "진짜 주인 된 기분"

르포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 선거

고령층 참여 속 배당 기대감 높아
10곳 중 7곳 무투표 당선은 '과제'

"정말 깜짝 놀랐다. 투표 시작전부터 조합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었다. 흡사 '오픈런' 같았다. 관심이 뜨거운 만큼 문제없이 마무리 짓고 싶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치르는 5일 서울 신길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만난 투표사무원 A씨는 이같이 말했다. 투표 시작 2시간 뒤인 오전 9시에도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금고를 찾은 조합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 '오픈런'... 첫 직선제에 뜨거운 관심

그중에는 신분증을 놓고 와 집으로 돌아가는 조합원도 있었다. 이날 투표 사무원을 수행한 이 씨는 신길새마을금고 직원이다. 평소 얼굴이 익숙한 조합원이지만 공명선거를 약속한 만큼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은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이였다.

고령층 조합원의 비중이 높았다. 등산복 바지와 패딩점퍼 등 비교적 편안한 복장으로 투표소를 찾았다. 일부 조합원은 투표가 끝난 뒤 투표소 1층 예금 업무 공간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며 투표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차기 이사



5일 오전 8시30분 신길새마을금고 2층 투표소를 위해 금고를 찾는 조합원들이 줄을 서고 있다.

/김정산 기자

장에 관한 바램이 주를 이뤘다.

투표를 마친 조합원 B씨는 "새마을금고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 운영을 잘하셔서 배당 좀 하면 좋겠다. 배당 못한 금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우리 금고도 배당을 못 해서 아쉽다"라고 말했다.

◆ 첫 투표 해보니... "진짜 주인 된 것 같다"

"언제부터 이사장을 직접 뽑는 건가요? 지금까지 나만 몰랐던 것은 아니죠? 우편으로 선거 명부를 받고 투표를 하러 왔는데 직접 이사장을 뽑으니, 금고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남다롭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C씨는 투표 대기줄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이같이 말했다. 첫 직선제거인 만큼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생소하던 반응이 이어졌다. C씨는 투표 후 금고의 주인이 된 것 같으며 첫 이사장 선거에 참여한 소회를 밝혔다.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의 지역 금고는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2000억원 미만 금고는 금고별 정관에 따른다. 신길새마을금고는 직선제로 선거를 치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해당 금고의 총자산은 3040억원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각 금고의 최고경영책임자다. 조합원의 권리 증진을 위해 2000억원 이상 중견 금고는 조합원이 직접 이사장을 선출한다.

한 지역금고 이사장 후보자는 "직선제로 차기 이사장을 뽑는 만큼 선거를

철저하게 준비했다. 선거 준비 과정에서 조합원과 소통하고 요구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다"라며 "조합원의 권리증진은 물론 금고 운영에 관한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됐다"고 했다.

◆ 10곳 중 7곳 '무투표 당선'

올해 이사장 선거에는 전국새마을금고 1101곳이 참여한다. 이 중 지역 금고 734곳에서 단일후보가 출마하면서 무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했다. 금고 10곳 중 7곳의 후보자는 '무혈입성'에 성공한 셈이다.

서울지역 금고를 살펴보면 193곳 중 144곳이 무투표로 차기 이사장을 선출했다. 조합원이 단일 후보를 검증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1시간 단위로 투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오전 7시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오전 11시 기준 서울지역 새마을금고 중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에 있는 관악중앙새마을금고다. 조합원 8043명 중 1239명(15.4%)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은평구에 있는 은평뉴타운새마을금고다. 조합원 5816명 중 213명(3.7%)가 투표에 참여한 상황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GS건설, 'iF 디자인 어워드' 2관왕 쾌거

GS건설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부문으로 자이(Xi) 브랜드 매거진인 '비욘드에이(BEYONDA.)' 웹사이트, 커뮤니케이

션부문으로 비욘드에이 브랜드북이 본상인 위너(Winner)를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자이 브랜드 매거진인 웹사이트 비

욘드에이는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콘텐츠 플랫폼으로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비욘드에이는 건설업계 최초로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을 조명한 웹형태의 매거진이다. 2021년 1월부터 매주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자이 입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인터뷰 중심으로

선보이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브랜드와 고객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한 브랜드 홍보를 넘어 입주민들의 취향과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감각적인 영상과 이미지, 텍스트를 통해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김주형 기자 gh471@